



개업은 까르마의 판도라다

홈스피탈내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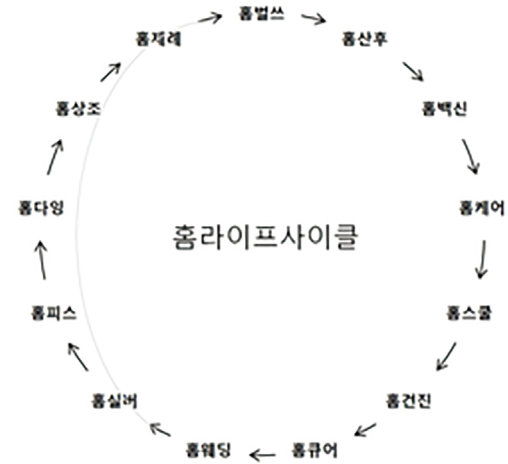
‘홈스피탈내과의원’을 개업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업을 통해 제 까르마의 판도라를 연 이상, 업장 소멸하고 선업을 쌓아 절망에 빠진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개업 일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공의 1년 차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일 년을 돌아보니 ‘코로나’와 ‘투석’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랜 염원이던 ‘홈라이프사이클(homelifecycle)’ 구현을 위해 ‘왕진’을 개업 아이템으로 잡고 ‘배달 의료’를 표방하며 병원 이름도 왕진병원을 뜻하는 ‘홈스피탈’로 지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왕진은 위축되고 투

석이 주(主)가 되는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개업 과정 전반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개업의 시작과 끝이 과연 제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인지도 새삼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많은 시간이 행복하였지만, 직원 월급날이 돌아올 때면 불현듯 ‘이 무엇고(是甚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얼 하

‘아름다운 재앙’과 ‘치명적인 호기심’으로 상징되는 ‘판도라(pandora)’와 ‘판도라의 상자’는 ‘업을 여는 행위’를 ‘불행 속 희망’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 고전하고 있을 때 이 글을 의뢰받아서인지 개업의 물리적 과정을 되짚어 보기 전에 ‘개업이란 제게 무엇이었고, 왜 개업을 했으며, 무엇을 위해 개업을 했는지?’에 대해 먼저 자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과정에 대한 복기를 시작하기 전에 위 질문들을 화두처럼 반복적으로 되뇌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제 나름의 결론은 “개업은 까르마의 판도라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업(業)으로 번역되는 ‘까르마(karma)’는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각각 ‘아름다운 재앙’과 ‘치명적인 호기심’으로 상징되는 ‘판도라(pandora)’와 ‘판도라의 상자’는 ‘업을 여는 행위’를 ‘불행 속 희망’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쯤으로, 온라인 일기장에 개업에 관한 자료들을 스크랩하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왕진을 개업 아이템으로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철학과 상호’를 정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어떤 분야를 하던 의사로서 환자를 본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볼 것인가?’ 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치는 허업이고 의료는 공업이다’라는 소위 ‘공업 철학’이 마련되었고, 그것을 담을 이름으로 ‘홈병원’이 결정되어 1년에 걸쳐 상표특허까지 마쳤습니다. 이름 하나 지은 것뿐이었지만 ‘홈병원 프로젝트’의 부푼 꿈에 마음은 흐뭇하고 흡족했습니다.

개업 2년 전

무료 개업세미나를 통해 자금, 입지, 인테리어, 장비, 노무, 세무, 홍보 등 개업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감을 다져갔습니다. 저는 평소 사업가 자질이 없다고 느꼈기에 이번 개업은 사업이 아니라 공업이라서 잘 될 거라고 저 자신을 세뇌하며 개업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개업 1년 전부터는 입지 탐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별생각 없이 제가 30년 토박이로 사는 현재의 집 근처에서 동네 의원을 개업하려고 했었는데, 프라이빗 왕진 서비스를 여기 분들이 원할까를 생각해 보니 아무리 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진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면서 접근도도 최적인 곳을 찾다가 지금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결국 ‘겁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남동에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6개월 전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남동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골목 골목을 걸어보고, 새벽까지 차로 곳곳을 돌며 생활패턴이나 유동인구 등을 확인하였으며, 심지어 한남동의 고시원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건물이 생겨 지하를 끼고 두 개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병원을 염두에 두고 지하에 입원실 겸 투석실을 두려던 실험적인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하에는 입원실을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결국 계약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평소 의원보다는 병원을 해보고 싶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분수를 깨닫고 결국 병원에서 의원으로 계획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개업 리스크는 줄었지만, ‘홈병원’에 대한 미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의원이지만 이름이라도 병원을 붙이자라는 생각에서 ‘홈스피탈’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4개월 전

현재의 건물이 결정되면서 개업 준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테리어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병·의원 인테리어들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다는 생각에, 건축사 친구에게 '병·의원을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실력은 최고인 분'을 어렵게 추천받아 T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인테리어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들과의 미팅 시간은 개업의 힘듦을 잊게 해주는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병·의원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관련 법령에도 익숙하지 않고 인공신장실의 특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병·의원에 대한 상식마저 없던 터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공부하고 의논해야 했지만, 그럴 줄 알고 선택한 결정이라서 단가가 비싼 것 외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덕분에 '내 집이라서 편안한' 홈스피탈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보니 병·의원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인공신장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제 인테리어 과정에서 큰 사고 없이 작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뜻밖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건물 전체에 대한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제가 다 해결해야 했고, 심지어 다른 층에 있는 업체의 화장실까지 제가 제 돈 내고 그것도 허락받고 눈치 보며 공사해야 했던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점차 꿈과 함께 돈과 인내심까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개업이 제 업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그려온 첫 도면에는 인공신장실에 투석기가 6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 넓지도 않은 공간에 환자중심병원을 구현한답시고 의사는 한 명이지만 1인실 호텔을 연상시키는 외래 방을 네 개나 만드는 실험적 인테리어를 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투석실은 미니 사이즈로 계획되었습니다. 투석실을 안 할까도 생각했던 저였기에 투석기가 몇 대이든 당시 저에겐 상관은 없었는데, 정작 문제는 정수실(RO)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낙점해 두었던 F업체 측에서는 투석기가 최소 15대 정도는 돼야 RO를 부담 없이 넣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투석기가 최소 10대는 되어야 투석실 운영에서 비로소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투석기가 10대만 되면 RO가 가능하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 준, 같이 하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B업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어떻게든 투석기 10대를 넣기 위해 다각도의 고민을 하던 차에, 침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의자를 넣어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투석 의자를 만들어

유통하던 F 업체가 반년 전쯤 국내에서의 사업성이 떨어져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고민 끝에 국내 회사를 통해 투석 의자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 치료기로 이름을 알리던 Y업체와 투석 의자 개발 및 발주 계약을 하고 여러 차례의 미팅과 시행착오 끝에 국산 투석 의자 1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결국 투석 의자는 투석 침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액 의자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개업 2개월 전

본격적으로 직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왕진 쪽은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분야라 구인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되어 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한 남자 간호사들로 진용을 꾸렸지만, 약간 방심하고 있던 투석 쪽은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투석간호사분들께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구애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통한 구인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업



2주 전 투석실 수간호사가 전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분과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투석 의사로서 경력이 미천한 저를 커버해 줄 최고의 베테랑 수간호사가 합류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2주 만에 초고속으로 투석실 세팅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업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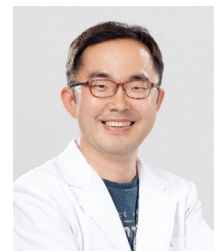
그렇게 드디어 2020년 6월 29일, 개업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업 받은컸 투석실에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개업 4일째가 돼서야 보다 못한 직원이 지인을 모셔 와서 비로소 첫 유지투석자가 생겼습니다. 무연고 투석실이라 그런지 그렇게 한 분 한 분 어렵게 환자가 모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라도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지 않았던 개업 초반부터 야간투석과 일요투석을 공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코로나 전파 우려로 모두가 꺼리던 때에도 격리투석과 단방투석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외래도 투석실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새벽부터 심야까지 운영하며 밥도 짬 날 때 먹으며 진료 중단 없이 환자를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열정이 통했는지 유지투석자가 꾸준히 늘어 어느덧 투석실을 확장해서 당초 10대였던 투석기도 17대가 되었고, 3명으로 시작한 직원도 11명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늘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한편으로 환자 관련 사건 사고도 점차 늘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보다 세심하게 환자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업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병원

왕진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비록 변창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단골 환자도 생기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 왕진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서울수도권 왕진으로 범위를 좁혔고, 처음에는 커다란 검사장비까지 모두 가지고 가는 병원급 왕진이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장비만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의원급 왕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진료내용은 영양수액이 가장 많았고, 각종 검사, 도관 교체, 항생제 치료, 창상 봉합, 드레싱 등 다양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평소 왕진과 투석이 접목된 홈투석(home dialysis)에 관심이 많았는데,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이동식 RO를 이용한 재택혈액투석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홈투석을 신호탄으로 향후 호텔 투석, 투석 버스 등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찾아가는 투석 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봅니다.

저에게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로컬 인공지능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야였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걸 안 하고 개업했다더라면 분명 망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투석환자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은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가능했습니다. 가톨릭의대, 순천향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업을 통해 제 가르마의 판도라를 연 이상, 업장 소멸하고 선업을 쌓아 절망에 빠진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글_이경표
홈스피탈내과의원